

Dow Corning, 한국을 아시아 기지로!

한국은 중국 실리콘 시장확대 최대 수혜국 ... 아시아 교두보 역할 기대

세계적인 실리콘 생산기업인 Dow Corning의 신임 아시아 사장 Ian Thackwray가 6월13일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했다.

Ian Thackwray 사장은 화학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연평균 10~15%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있는 아시아 실리콘 시장 확대를 목표로 한국을 비롯한 중국,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임을 표명했다.



Ian Thackwray 사장

또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는 일종에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중국을 중심으로 일본, 미국 등 전세계적인 경기회복을 기대와 함께 실리콘 시장에 있어서는 한국이 중국 수출의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실리콘시장이 예상 밖으로 성장하고 있고 한국다우코닝(대표이사 전영욱)이 아시아 실리콘 생산기지로써 기대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Ian Thackwray 사장은 향후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는데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아시아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영욱 대표이사

한편, 6월1일자로 종결된 법정관리(Chapter 11)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케 한 기회였다”고 표현하면서 법정관리 중에도 기술과 제품의 대한 혁신을 위해 매출의 6~7%를 투자했고 고객 Needs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게 됐다며 긍정적인 효과에 무게를 두었다.

특히, 혁신을 위한 Dow Corning의 노력을 강하게 피력했는데, 우선 1998년 SAP 시스템을 도입해 일찌감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거래 시스템을 갖추었고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Solution을 제공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Ian Thackwray 사장은 안전·환경보전과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해서도 강한 관심을 보이며 “Dow Corning은 현재, 화학제품의 개발에서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환경을 보호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나타냈다.

또 공공사회의 안전과 근로자의 보건을 개선시키고자 실시하는 전 세계적인 자율 운동인 Responsible Care Community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다른 기업에도 안전환경 보건 기준의 올바른 도입과 확산, 정착을 위해 자발적으로 높은 수준의 안전환경 관리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시장에 대해 Ian Thackwray 사장은 “한국은 매출 뿐만 아니라 전략적 위치에서도 중요한 시장이며 한국다우코닝은 잠재능력과 강한 리더십을 가진 인적 자원이 풍부해 Dow Corning의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는 말로 깊은 애정을 표시했다.

Ian Thackwray 사장은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y Forum)이 주최하는 제1차 <전략적 통찰을 위한 아시아 원탁회의> 참여를 위해 방한했으며 인터뷰에는 전영욱 한국다우코닝 대표이사와 Liliana Ng 아시아 지역 커뮤니케이션 담당자가 대동했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6/16>